

# 農業產學協同의 現況과 改善策

金 容 植  
(全南大 農大 學長)

農業產學協同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大學과 農業機關은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운영을 통해 學問과 產業의 건전한 發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政策的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I

産業이 발전함에 따라 高度의 技術이 필요한 現代社會에서는 産業發展의 根幹을 이루는 理論과 그에 따른 研究活動이 바로 高度의 技術을 創出해내는 原動力이라 할 수 있겠다. 產學協同이란 深奧한 學問에서 비롯되는 理論과 産業現場의 技術을 연결하고 발전시켜 國家産業의 尖端技術을 제공하는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農學은 實學의 場이다. 이는 空理空論이 아닌 實踐의 學問이다. 따라서 實際의 으로 이용되며, 그 應用을 土臺로 하여 科學이 研究되며 教育되지 않으면 안 된다. 基礎科學을 밑거름으로 하여 그를 活用함으로써 生活을 풍부하게 하는 生産物을 만드는 方法을 研究하고 教育하는 것이 農學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學問으로서 農業을 다루는 農學은 產學協同의 必要性을 낳게 된다.

그리하여 1958년에 農村振興廳 傘下에 農事

試驗 指導委員會가 設置됨으로써 農業產學協同이 胎動되었으며, 「農業教育和 農事試驗研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보다 有機的으로 連繫시켜 農村振興事業과 農科系學校, 農業團體 및 營農者間에 農業產學協同體制를 具現함으로써 農業技術의 開發과 農村近代化의 促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1971년에 農業產學協同 審議會 規定이 大統領令으로 公布됨에 따라 本格的인 活動이 시작되었다. 한편 1964년에는 學問과 產業의 相互兼職을 위한 規定이 공포되어 教授와 教師가 農業機關에, 農業機關 勤務者가 大學과 高等學校에 兼職勤務하게 되었으며, 또한 1979년에는 民間인이 5억원을 기증하여 產學協同 基金을 마련하고 그 利益金으로 農業에 관한 調查研究事業 및 指導事業 支援과 學術活動 支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產學協同問題에 있어서 諸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겠으나 우선 產學協同의 現況과 그에 따른 問題點을 알아보고 그 改善策에 대한 간단한 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 II

### 1. 大學教授의 農業機關 兼務 問題

1982年 農村振興廳 資料에 따르면 大學教授 중 振興廳 傘下 17개 機關, 9개 道農村指導院, 2개 林業分野의 研究機關에 接직되어 있는 者가 120名이며 이들이 關係機關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課題는 147件이고, 84名의 教授가 이들 機關에 초청되어 101件의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農業機關에 接직하는 教授는 教授 本然의 講義, 研究, 奉仕 등에 쫓기면서 兼任 研究官의 任務를 수행하기 때문에 激務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效率的으로 產學協同 趣旨을 충족시키려면 몇 가지 措處가 必要하다고 본다. 가령 講義의 義務時間이나 研究論文 提出 등을 調整해 주거나 大學間에 交換教授制를 적용하듯이 農業機關에서 일정 기간 專任으로 勤務하면서 研究事業 등을 遂行하도록 하는 方案도 考慮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振興廳 規定에는 1個月에 32시간을 關係機關에서 勤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強制規定보다는 필요에 따라 休日이나 放學期間을 이용하여 集中的으로 研究事務를 수행하는 方法도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基金支援에 의한 獨立 研究事業의 경우 대부분 研究를 1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넓은 土地를 利用하여 一年一作만이 가능한 경우의 研究를 遂行할 경우, 年次에 의한 變異 등 事業의 特殊性을 고려할 때 적어도 5~10年의 長期的인 研究內容으로 補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나이론사」의 研究에 대한 것들을 보았는데 1년에 數回에 걸쳐 再實驗이 가능한 室內實驗의 研究인데도 研究中間報告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10年間에 걸쳐 研究費를 지급한 事例가 있었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2. 農業機關 職員의 大學 兼務 問題

前記 資料에 의하면 農業機關의 大學 兼職教授의 수는 16名으로 教授의 兼職研究官數에 비하여 대단히 적다. 또한 農業機關에서의 大學 出講者數도 58名에 불과하다. 農業은 環境 및

生長期에 따른 變異가 크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適用理論이나 技術도 달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로 農業機關에 종사하면서 體驗으로 얻어진 技術과 熟達이 大學에서의 講義에 채택된다면 그야말로 산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農業機關의 보다 많은 研究職員들이 大學 兼職教授로서 講義나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學問과 產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農村에서 일어나는 問題들이 大學에서의 研究對象이 될 수 있고, 大學은 그러한 問題들을 종합하여 研究·解決함으로써 大學機能의 하나인 社會奉仕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農業研究職 公務員의 大學院修學 實態(1982年)를 보면 碩士課程에 145名, 博士課程에 134名으로 다른 產業機關의 大學院修學 實態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수가 大學과 關係를 맺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自己 職場에서 근무하며 大學出席은 거의 週1日 程度밖에 되지 않아 大學에서의 심오한 學問 研究와 大學의 器材, 施設 利用을 통한 實驗 등에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農業研究機關의 大學院 修學者들은 一定 期間 Full-time으로 大學에 나와서 學問과 研究에 만 전념할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職場에서의 본래의 自己擔當 研究事業을 大學으로 가져와서 大學教授들과 협의하여 수행한다면 새로운 理論을 導入·利用할 수 있고, 自己 本然의 業務를 수행하면서 學問 研究에 전념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研究費 支援 問題

研究事業遂行에 있어서 研究費問題는 거의 絕對的인 것이다. 여러 가지 產業分野의 새로운 技術開發을 위해서 研究費 支援團體의 協助를 얻어 많은 研究事業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農業分野의 研究費 支援 選擇은 별로 많지 않다. 他產業分野의 경우는 國家機關뿐만 아니라 많은 產業體에서 自體技術開發을 위하여 研究費가 지원되고 있으나, 農業分野의 경우 農業自體가 研究投資에 의한 產業體들의 直接的인 利益과 關係가 멀기 때문에 그들의 研究支援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아직도 農業은 우리나라 產業의 주요한 分野이고, 國家發展은 모든 產業의 均衡發展에서 온다고 볼 때 農業分野 發展도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農業分野 研究事業도 必然的이며 동시에 研究費 支援도 받드시 뒤따라야 한다.

農業에 관한 研究는 農村振興廳 등의 國家機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農科系 大學의 教授들에 의한 研究業績도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은 많은 우수한 頭腦와 施設들이 있지만 研究費 不足으로 이들을 충분히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遊休狀態에 있는 人力과 施設을 活性化시키고 보다 效率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研究費가 지원되었으면 한다. 작년에도 農業生産協同基金에서 36件에 7,700만원이란 研究費가 支援되었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積極的인 支援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農業分野의 研究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支援·解決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研究費 支援 資金의 造成은 外國에서 輸入하고 있는 穀物의 國內販賣에서 생기는 利益金의 일부 또는 農協의 利益金 일부 등 農業에 관계되는 分野에서 전환, 利用할 수 있는 方法도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인삼연구초연구소의 研究費가 專賣 收益金에서 充當되고 있는 事例도 참고할 수 있겠다.

#### 4. 農科系 學生의 現場實習

農科系 學生들은 學校에서 배운 理論과 技術을 農業關係機關이나 篤農家 牧場 등에서 觀察 및 現場實習을 하게 되어 있는데, 上記 資料에 따르면 65개 大學에서 665名, 32개 專門大學에서 154名, 71개 農高에서 1,496名으로 總 168개 學校에서 2,315名이 參與하고 있다.

여기에서 現場實習의 問題點을 보면 우선 이 實習의 目的과 內容 등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最近에는 많이 그 意味가 퇴색되고 形式的인 傾向으로 흘러 가는 듯하다. 물론 根本的으로 實習에 임하는 學生들의 姿勢도 問題이지만 받아들이는 業所도 마지못해 하고 심하면 拒否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實習을 위한 多少의 經費支援도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전혀 없다.

大學에서는 實習의 義務學科가 있어 制度的인 뒷받침도 있었으나 그것도 有名無實하다. 그리하여 最近에는 이와 같이 現場實習을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輿論도 있다.

大學에서는 理論과 技術教育이 講義室 中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產業振興法에 의하여 30日以上 現場에서 觀察 및 現場實習을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本來 目的대로 보다 效率的이고 實際的인 實習이 되었으면 한다. 실습에 임하는 學生들의 姿勢도 바르게 되어야 하겠고, 實習을 시키는 機關이나 業所도 積極的으로 指導·利用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文教當局의 支援이나 制度的인 뒷받침도 改善되었으면 한다. 특히 農業分野는 實習을 충실히 이행할 만한 條件을 갖춘 個人業所가 부족하기 때문에 農業關係機關이나 그 傘下團體 등에서 產學協同 次元에서 협조하여 農學과 農業을 발전시키는 좋은 活力素가 되어 現場實習의 意味를 바르게 했으면 한다.

#### 5. 施設·文獻의 相互利用 問題

上記 資料에 의하면 研究機關 實驗器機의 利用은 34개 大學에서 70餘種, 大學 實驗器機의 이용은 13개 機關에서 24種이다. 또한 研究機關 文獻의 大學利用은 閱覽 및 貸出에서 279名의 教授가 932卷, 文獻調査에서 493名의 教授가 19,634件을 실시하였으며 大學文獻의 研究機關利用은 閱覽 및 貸出에서 322名의 研究員이 1,153卷, 文獻調査에서 269名의 研究員이 1,126件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으로 科學振興을 위하여 國家的 次元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經濟事情 등 여러 가지 條件으로 인해서 先進 外國처럼 우수한 器機나 文獻을 모든 機關에서 必要量만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大學과 研究機關은 서로가 優秀 器機와 文獻을 相互交換·利用·補完함으로써 그 利用 價値를 極大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大學과 研究機關은 優秀器機의 種類와 機能 및 主要圖書와 學術雜誌의 目錄을 만들어 相互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產學協助의 하나

의 主要 事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Ⅲ

農業產學協同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보다 많은 發展을 위해서는 個人產業體가 부족한 農業分野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더욱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大學教授의 農業機關 兼務 問題는 教授 本然의 責任이 加重되고 있는 이때 講義責任時間의 負擔減少 등 積極的인 便宜提供과 農業機關 研究員의 더욱 많은 數가 現場과의 連繫性을 위하여 大學에서 講義 및 세미나를 맡게 해야 하며, 大學院의 門戶를 더욱 넓혀서 碩·博士課程에서 研修할 수 있도록 하고, 一定期間은 Full-time 으로 研究에만 전념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도

必要하다고 본다. 農業關係 研究費 支援 問題는 個人產業體 次元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政策的 次元에서 증액되어야 하며, 農科系 學生의 現場實習은 農業關係機關 및 그 傘下團體에서 積極的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고, 當局의 보다 많은 支援이 요청된다. 또한 大學과 農業機關의 우수한 器機나 文獻은 相互 效率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상의 몇 가지 問題 外에도 지금까지의 農業 產學協同을 돌이켜 볼 때 조금은 消極的이고 形式的인 運營이 되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보다 積極的이고 實際的인 실천 運營을 통해서 명실 공히 學問과 產業이 동시에 健全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大學과 農業機關이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강력한 政策的인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